

오병이어로 천팔백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요6:11)

주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위로와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한국UBF는 그들을 위한 수양회를 계획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했으므로 온라인 수양회를 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1.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2월부터 김모세 목자님의 주제 하에 모든 한국 스태프 목자님들이 팀별로 온라인 미팅을 가지고 수양회를 위해 대화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삶의 꾀대를 분명하게 불드는 것이 필요함을 공감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알고자”라는 수양회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 수양회에서 빌립보서를 공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륙 코디네이터 선교사님들인 서여호수아(아프리카) 이다윗(CIS) 강제임스(유럽) 권바울(아시아) 이어호수아(오세아니아) 조스테반(남미) 선교사님들, 국제본부의 김다윗(미국) 서요한(미국) 선교사님들, 한국의 김갈렙, 노모세 목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미팅을 가지며 수양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수양회 초청대상을 선교사들과 내셔널 리더들로 확정한 직후 한국UBF 대표인 김모세 목자님은 시카고 HQ의 란워드 목자님에게 편지를 써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메신저들과 소감강사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란워드 목자님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이후로 한국본부와 시카고 HQ가 합심해서 수양회 메신저들과 소감강사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합심동역의 오병이어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지와 인생소감의 오병이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수양회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했고 그만큼 많은 메신저와 소감강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각

대륙 코디네이터 선교사님들께 ‘역사의 크기나 눈에 보이는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감강사 중 절반 이상은 자매 선교사님들을 추천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대륙 코디네이터 선교사님들은 오랫동안 열악한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세움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자매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천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수양회여서 선교사님들은 메시지와 소감을 완성한 뒤 리허설을 거쳐 영상까지 찍으셔야 했습니다. 강사님들이 영상을 보내오면 우리는 번역을 하고 영상에 자막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특송과 특주의 오병이어도 구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약 30개의 특송과 특주 동영상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음악 동영상들은 메시지와 인생소감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수양회를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반 모임(small group)의 오병이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반 모임은 온라인 수양회 중 유일하게 쌍방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수양회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분반 모임에 할애했습니다. 개회와 폐회와 주제강의와 인생소감 발표를 전부 합치면 4시간이었고 분반 모임은 두 번의 말씀 공부와 한 번의 소감 발표를 합쳐 5시간이었습니다. 분반을 편성할 때 그 동안 만날 기회가 거의 없던 타 대륙 선교사님들이나 타 대륙 리더들을 만나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보다 쉽게 공감하고 보다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슷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리고 ‘남녀를 구분해서’ 분반을 짰습니다. 분반 리더로 수고한 한국 목사님들 중 아프리카 유럽 CIS 중동 권역과 북미와 라틴 권역을 섬기신 분들은 분반 모임을 섬기기 위해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태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별처럼 귀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감당해주셨습니다.

2.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3월 15일부터 수양회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비를 내는 수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글 폼을 이용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총 1693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중 1110명이 선교사였고 583명이 내셔널 리더들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수양회를 섬기기 위해 한국 목사님들 126명이 참가함으로 수양회 총 참석자 수는 1819명이었습니다. 성경공부 분반은 아프리카 유럽 CIS 중동 권역 61반, 아시아 오세아니아 권

역 32반, 북미와 라틴 권역 139반, 총 232 분반이었습니다. 언어별로는 영어 GBS 115반, 한국어 GBS 91반, 스페인어 GBS 23반, 러시아어 GBS 2반, 독일어 GBS 1반 등이었습니다. 전체모임은 줌 웨비나로 진행되었고, 분반모임은 분반리더 개인 줌이나 대륙별 공통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모세 목사님(한국UBF 대표)의 개회 메시지(빌1장)는 세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모세 목사님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참석자들 모두가 복음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자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CIS 중동 권역에서는 이느헤미야(RSA) 한제임스(오스트리아) 서여호수아(남아공) 선교사님들이 빌립보서 2~4장 말씀을 섬기셨습니다. 이느헤미야 선교사님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아트 챗터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한 사람의 지휘 아래 다양한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루어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증언해주셨습니다. 한제임스 선교사님은 척박한 오스트리아 땅에서 곳곳이 복음역사를 섬기다가 지난해에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서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작년 연말부터 연속해서 무장강도를 만나셨습니다. 말씀 강사로 세움 받은 직후에도 집에 무장강도가 침입하는 일을 겪으심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이겨내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폐회 메시지를 조이풀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인생소감은 첫째 날 중동의 H 목사님(M) 그레이스 M 선교사님(CRP)들이, 둘째 날 진요셉 선교사님(노르웨이) 수산나 Y(CKA) 박드보라(세르비아) 임레베카(우간다) 선교사님들이 발표하셨습니다. H 목사님은 무슬림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비자 문제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선교지에 남아 충성하는 그의 인생소감은 많은 사람을 함께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 M 선교사님은 러시아 군대에 입대한 아들 20분 면회를 위해 왕복 120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하는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본국에 있었으면 약사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러시아 양들을 섬기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28년째 추운 러시아 땅에서 양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진요셉 선교사님은 뇌출혈로 인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시며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평신도 선교사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수산나 Y 선교사님은 안전 때문에 영상 대신 음성과 자막으로만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깊이 받아들인 후 주님의 복음 전파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금지된 나라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3~5시간씩 온 시대를 걸어 다니며 복음 전도지를 붙이고 계십니다. 박드보라 선교사님은 지독하게 불행한 가정환경 때문에 30살 이후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를 구원하사 세르비아 선교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지금은 노비사드 대학을 개척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임레베카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캠퍼스 선교와 의료 선교를 동시에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쓰시는 가운데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는 마이클 호(호주) 김승원(한국) J 변연(AI) 선교사님들이 빌립보서 2~4장 말씀을 섬기셨습니다. 마이클 호 선교사님은 홍콩UBF에서 호주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는 영적 성장이 구원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럴 때 이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김승원 목자님은 우리의 목표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는 2008년부터 윈천 챗터를 개척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녀들과 연약한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주제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리허설과 별도로 영상만 7번을 찍었고 마침내 영상을 완성한 후에는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J 변연 선교사님은 현지인들조차 타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A국에서 28년 동안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는 삼엄한 핍박과 극한 가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임을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기초로 유쾌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인생소감은 첫 날 액티브(AI) 목자님과 김사라(일본) 선교사님이, 둘째 날은 캐롤 호(호주) 홍폴린(싱가포르) 백아로마(B) 선교사님들이 발표하셨습니다. 액티브 목자님은 원래 인생소감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무엘 팔라카 목자님을 대신하여 뒤늦게 인생소감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도 인생소감을 완성한 직후 영상을 찍기 직전에 코로나

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셨을 뿐 아니라 수양회 8일 전에 소감 영상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극한 가난으로 인한 운명주의와 극심한 우상숭배에 갇혀 있던 그를 구원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사라 선교사님은 우상숭배와 정욕과 질병에서 구원하사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지난 30년 동안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영혼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셨습니다. 캐롤 호 선교사님은 세사적인 욕망들로 가득했던 자신을 목자요 선교사로 삼으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 호주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호주 브리스턴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홍폴린 선교사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여종으로 단련하신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뒤 지난 20년 동안 직장생활 목자생활 가정생활 삼중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계십니다. 백아로마 선교사님은 1994년 가난한 불교 국가인 B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B국은 내전이 진행 중이었고 테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브라가 드나들고 도둑이 자주 드는 집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온 전갈에 물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위협에서 그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광야와 같은 그 곳에서 말씀의 강과 제자 양성의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충성하고 계십니다.

북미와 라틴 권역에서는 김안드레 선교사님(에콰도르), 윌리엄 라슨 목사님(미국), 에딧 나헤라 선교사님(엘살바도르)들이 각각 빌립보서 2~4장 말씀을 섬기셨습니다. 김안드레 선교사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배울 때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음을 증언해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겸손하게 합심동역하면서 가난하고 위험한 에콰도르 개척 역사를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윌리엄 라슨 목사님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유익임을 증언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에딧 나헤라 선교사님은 2006년부터 엘살바도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가난과 가정붕괴와 갱들로 가득한 위험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임을 눈물로 증거하셨습니다.

키건 칼리스(워싱턴) 죠수아 박(캐나다 빅토리아) 라울(멕시코 세우) 배에스터(멕시코 푸에블라) 존 프링글(미국 엘카미노) 장사라(벨리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인생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키건 칼리스 목사님은 자신이 연약하거나 실패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죠수아 박 선교사님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가족 부양과 물질 자립과 캠퍼스 개척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캠퍼스 양들과 자녀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라울 목사님은 한 때 기억을 상실했었던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부모님들의 불화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를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셔서 매주 주일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배에스터 목사님은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느리고 일을 할 힘도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자신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구속 역사에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익임을 고백하면서 충성스럽게 양들과 자녀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존 프링글 목사님은 잃은 양과 같은 자신을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성경공부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오후에 일찍 퇴근하여 캠퍼스로 가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어떤 때는 다리가 너무 아파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장사라 선교사님은 2009년 62세에 은퇴하시고 실버 선교사로 벨리즈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가 렌트한 집에는 에어컨도 없고 모래파리와 도마뱀과 쥐와 바퀴벌레와 모기들이 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정을 오픈하고 장막생활을 하면서 많은 벨리즈 학생들을 돕고 계십니다.

삶이 뒷받침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인생소감은 보고 듣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큰 감동과 은혜를 준 것은 분반별 말씀공부와 분반별 소감발표였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분반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동역 문제, 소통 문제, 육아 문제, 외로움 문제, 비자 문제, 번아웃 문제 등 각자 처한 어려움은 다양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 양들을 섬겼지만 눈에 보이는 제자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컸던 만큼 분반마다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는 말 한 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 다른 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취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슬한 고난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깨닫고 이 모든 고난들을 죽기까지 감당하다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내적 방향을 잡게 되자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들이 기쁨과 즐거움들로 변했습니다. 분반 소감 발표 시간은 울다가 웃다가 하는 시간이 되었고 마치 천국의 교제와 같았습니다.

분반 성경공부와 분반 소감발표를 통해서는 다른 대륙의 선교사님들과 내셔널 리더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는 자신을 파송한 센터 목사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차가 달라서 한 번에 모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파송 선교사가 많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모이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수양회 은혜를 나누고 감사제목과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홈커밍 데이 때도 반가움과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을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홈 센터 목사님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홈 센터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근황과 기도제목을 직접 들음으로써 더욱 생생하게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는 주님이 이번 수양회에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잘 간직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양회의 큰 장점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양회여서 수양회 참석을 위해 1~2주씩 휴가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들지 않았고 수양회비도 들지 않았습니다. 장소에도 제약이 없어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마트에서, 어떤 분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시간에 맞춰 수양회 프로그램에 참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로 나온 지 오래 되었지만 처음으로 선교사 리더 수양회에 참석 하게 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은 말초 신경의 모세 혈관까지 피가 도달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양회 준비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합심동역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 큰 감사제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적

인 섬김으로 전 세계 내셔널 리더들이 이번 수양회에 참여해서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말씀 공부를 하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양회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만족스런 수양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우리 선교사님들과 내셔널 리더들은 이번 수양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고 영적인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알고자” 이 두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대륙의 선교사님들과 내셔널 리더들과 만나 교체하며 피차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선교사님들과 내셔널 리더들끼리 영적인 친구가 되어 친밀하게 대화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참석자들은 평가 외에도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견들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1800명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이전에 없던 길을 내시고 시간과 거리와 비용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배부른 수양회를 갖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노모세 (한국UBF 총무)